



대호호 농업용수공급 협의회. ©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제공

또한 농어촌공사는 농업인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으로 안전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역 농업인 대표, 당진시와 2022년 9월 '대호호 농업용수공급 관리'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.

이날 협의회에서 농업인 대표, 당진시 관계자와 뜨거운 토론이 있었으며, 간척농지 염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용수공급 시기, 염해피해 주의 알림문자를 수시로 제공하여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도록 논의됐다.

농어촌공사 관계자는 “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간척지 벼 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 지원, 농업인들과의 정보 공유 등 관계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보다 더 안정적인 간척지 경작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당진신문 djnews@hanmail.net